

펜싱 男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3연패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권 국가로서는 '최초' 오상욱, 한국 펜싱 첫 2관왕 구본길, 3번째 '금빛 찌르기'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 오상욱(27·대전광역시청), 구본길(35·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23·대전광역시청), 도경동(24·국군체육부대)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1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를 45-4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2012 런던,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의 쾌거를 이뤘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팬 종목 로테이션으로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올림픽 남자 사브르 종목 단체전 3연패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이자, 1928년 암스테르담 대회부터 1960년 로마 대회까지 7연패를 달성한 헝가리 이후 64년 만이다.

지난달 28일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우승하며 한국 선수단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긴 오상욱은 단체전까지 우승하며 우리나라 대회 첫 2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2관왕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국 남자 사브르 선수로는



오상욱이 7월 3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를 확정짓고 구본길과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최초로 올림픽 개인전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딴 오상욱은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단체전을 포함해 개인 통산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했다.

2012 런던 멤버인 만형 구본길은 세 번째 단체전 '금빛 찌르기'를 완성하며 올림픽 라스트댄스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생애 처음 올림픽 무대에 선 '젊은 피' 박상원, 도경동은 '뉴 어젠처스'의 일원으로 단체전 우승에 일조하며 미래를 더 기대케 했다.

한국 펜싱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사

브르 개인전 오상욱 금메달에 이어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두 번째 메달을 수확했다.

2012 런던 대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단일 올림픽에서 '멀티 금메달'을 챙겼다.

한국 펜싱은 이번 대회에서 3일 열리는 여자 사브르 단체전 종목을 남겨둔 상태다.

이날 단체전 첫 경기인 8강전에서 캐나다를 45-33으로 여유 있게 누른 한국은 8강전에서 홈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개최국 프랑스를

45-33로 꺾고 은메달을 확보했다.

고비를 넘긴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이란을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하며 금메달을 결정지었다.

한편 이번 남자 사브르의 금메달로 한국은 하계올림픽 메달 307개를 채웠다.

런던 대회 역대 남자 최중량급(105kg 이상)에서 4위에 올랐던 전상균이 기존 동메달리스트 무슬란 알베고프(러시아)의 뒤늦은 도핑 테스트 적발로 동메달을 받아 300개 됐다. /뉴시스

레슬링 간판 이한빛, 올림픽 출전

출전권 획득 몽골 선수, 도핑에 적발... 차순위로 주어져 행정 절차 처리 후 파리로 출국... 전북 선수 9명으로 늘어

전북 레슬링 간판인 이한빛(안주군청·사진)이 파리 하계 올림픽에 극적으로 출전, 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에 진출해야 파리행 티켓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한빛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던 몽골 선수가 도핑에 적발되면서 차순위로 이한빛에게 출전권이 주어졌다.

이에 이한빛은 각종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내 처리한 뒤 곧바로 결전지인 파리로 출국하게 된다.

안주군청 레슬링팀 정환기 감독은 "어젯밤 긴급하게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현재 출국 준비 중"이라며 "최근 열린 대통령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도 우승한 만큼 한빛이가 최선을 다해줄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빛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서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뉴시스

배드민턴 김소영-공희용, 8강 탈락... 2연속 메달 획득 불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과 공희용(전북은행)이 여자 복식 8강에서 탈락하며 2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세계랭킹 10위 김소영-공희용 조는 1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사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복식 8강전에서 세계랭킹 12위 필리핀-티나 무랄리타란 조(말레이시아)에 0-2(12-21 13-21)로 졌다. /뉴시스

3점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던 김소영-공희용은 말레이시아에 가로막혀 8강에서 행진을 멈췄다. 2020 도쿄 대회 동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입상을 노렸으나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완주군청 근대5종팀, 전국 선수권 석권

김예나, 2관왕 차지
총 6개 메달 획득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단이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를 석권했다.

완주군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김예나 선수가 근대5종 여자 개인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이화영 선수와 함께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이화영 선수는 개인종목에서 은메달을, 김우철 선수는 근대5종 남자 개인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김우철, 형태국 선수는 단체전 동메달을 따냈다.

홍성 릴레이 종목에서도 김예나 선수와 형태국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 완주군청 근대5종팀은 총 6개의 메달을 가져왔다.

올해 1월에 창단한 완주군청 근대5종팀은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완주군의 위상을 크게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단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높이고 있다.

임성택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보람차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체육회의 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한지훈편을 계획해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했다.

한편, 완주군은 대한체육회의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까지 공모에 선정되면서 약 3억 3,0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았다. /완주=염재복 기자

3일 '제10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제10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과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회장 고봉수)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등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품새와 겨루기 부문에 선수와 임원, 대회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가한다. 품새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로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지고, 겨루



지난해 열린 '제9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기는 중등부·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7일부터 15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자유를 겨루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은 태권도원배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제10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를 태권도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파리

올림픽이 개최 중인 가운데 8월 7일부터는 김유진·박태준·서건우·이다빈 선수가 출전하는 태권도 종목이 열리며 태권도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하며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대회가 되도록 민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홍순무·홍용표 父子 2인展

2024. 7. 17. Wed - 8. 13. Tue
Opening. 7. 20. Sat P.M. 3:00

기린미술관 GILIN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Tel. 063-284-0888, 매일 10:00-18:00, 월요일 휴관